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 및 관련요인 분석

김재희(연세대 간호학 박사)

본 연구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진료원의 특성 및 제반환경 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세 개 도에 소재한 보건진료소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표출한 177개 보건진료소이다. 자료수집은 이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177명의 보건진료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 투입변수로 보건사업운영비와 인건비를 설정하였으며 산출변수로는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집단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특수사업건수를 조사하였다. 한편, 보건진료소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보건진료소 환경적 특성, 보건진료소 사업 지원 정도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20일에서 11월 5일까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이 사용되었고 효율성에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177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비 및 보건사업비는 평균 2,010만원으로 최소 303만원에서 최대 7,099만원까지 투입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인건비는 평균 3,361만원이었으며 최소 2,000만원 최대 5,117만원이었다.
2. 대상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행건수는 내소자수 280명, 가정방문건수 28.8건, 전화상담건수 28.4건, 집단보건교육건수 154건,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는 평균 73.8%이었다.

3. 효율성 측정결과 조사대상의 효율성은 모형1에서 평균 0.75, 모형2에서 평균 0.62였으며, 효율치 1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모형1에서 26개(14.7%), 모형2에서 17개(9.6%)였다.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1에서 보면, 보건진료원의 업무관련 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효율적이었다. 관할지역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이며, 지방의회의 협조정도가 클수록, 운영협의회 협력정도가 클수록 효율적이었다.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원이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을 경우, 업무관련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이었다.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의 전문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위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것이다.